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35호 [주제 제25744호] 주제 106 (2017)년 8월 23일 (수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  
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이 조용원동지,  
김정식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현지  
에서 국방과학원 화학재료  
연구소의 책임일꾼들이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1966년  
8월 11일교시에 따라 조직  
된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  
구소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2009년 8월 30일 몽소  
찾아오시어 지난 기간  
국방과학원 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첨단무장장비  
개발에 필요한 화학재료연  
구개발에서 나서는 강령적  
인 가르침을 주신 불멸

의 영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연구소이다.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에서는 『화  
성』계열로케트들의 엘보호재료와 전투부  
분출구재료를 비롯하여 각종 현대적인 무  
장장비들에 쓰이는 여러 가지 화학재료들에  
대한 연구개발과 생산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연구소에서는 최근년간 자체의 힘  
과 기술로 대륙간탄도로케트의 전투부첨  
두와 고체발동기분출구제작에 리용하는  
최첨단재료인 3D란소/란소-란화규소복합  
재료를 연구개발하고 국산화하는데 성공  
함으로써 주체조선의 첫 대륙간탄도로케  
트시험발사에서 대성공을 이룩하는데 크  
게 기여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마중나



온 일군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연구소실험  
실을 휴대하고 도와주기 위하여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최근년간 연구소가 우리 당의  
국방과학기술증진정책, 군수공업정책을  
높이 받들고 누가 보건말건 애국적인 철  
학자들이나 연구개발을 힘있게 벌려 많은 일을 하였  
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  
꾸린 혁명사적교양실과 과학기술성과전  
시설을 돌아보신 다음 대륙간탄도로케트  
전투부첨두와 고체로케트발동기제작공정  
를 둘러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헌  
유에 의한 예비성형제작조공정, 화학기상  
침식공정, 고압액상침식공정과 마감처리

공정들을 휴대하시면서 예비성형제의 밀  
도, 화학기상침식공정에서의 침식온도, 전  
공도, 칠적시간, 고압액상침식공정에서의  
침식온도, 압력, 작업배수, 침식회수, 바감  
처리공정에서의 기술적특성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가 생산한 첨두재료의 시험결과를 보고  
받으시고 로케트기술이 발전하였다고 하  
는 선진국가들에서 만든것보다 밀도, 세  
기, 침식속도 등 모든 특성이 더 우월  
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어  
고체로케트발동기제작공정을 현지에서  
도해하시고 생산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  
를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연구  
소의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이 당중앙  
의 전략적구상과 명령을 높이 받들고 대  
출력고체로케트발동기제작에 리용하는  
고강력섬유와 로케트전투부첨두재료인  
란소/란소복합재료를 우리 식으로 연구  
개발하고 여려차례의 탄도로케트시험발  
사를 통하여 대기권재돌입능력을 향상한  
것은 로케트공업발전에서 관건적인 의의  
가지는 대단한 성과라고 하시면서 주체  
적국방력강화에 특출한 공헌을 한 국방  
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의 사업성과를  
높이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식의 전략로케트개  
발에서 국방과학원 화학  
재료연구소가 맡고 있는  
책임과 임무가 특별히 중  
요하다고 하시면서 연구  
소앞에 나서는 김령직인  
파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연구  
소가 국방공업의 자립성  
을 강화하고 발전에 기여  
하는 중요한 단위인 것만큼  
새 세기의 요구와 우리 당  
의 과학기술증진정책의 요  
구에 맞게 전축미학적으로  
나 실용적측면에서 흡차를  
메우기 연구소를 일신시키  
고 생산능력을 확장하여  
과학연구개발과 생산이 일  
체화된 최첨단연구기지로  
개전현대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연구  
소에 고강력섬유감기반에  
의한 발동기생산공정과 판

소/란소복합재료에 의한 로케트전투부첨두  
및 발동기분출구생산능력도 보다 확장하여  
고체로케트발동기와 로케트전투부첨두를  
팡팡 생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과학연  
구사업의 성과에 부는 중요하게 일군들의 사  
상관련과 일봉제, 사업기풍에 달려있다고  
설직과 기술을 보기 전에 사람부터 먼저  
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학자, 기술자, 노  
동자들의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험  
기구들, 분석설비들을 원만히 보장해주며  
그들의 연구사업과 생활조건, 후방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2 면으로 계속





#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충직하게 계승하고 길이 빛내이자

온 나라가 원쑤객열의 기상으로 용  
암처럼 끌어번진다.

조국방선을 굽чин히 지켜선 영웅한  
우리 인민군대의 서리발총창들이 번  
뜩이고 꽁꽁국정부설령에 걸한 이 땅  
그 어디에서나 깃털 우리 군대와 인  
민은 그처럼 복잡다단한 혁명의 길  
을 헤쳐나가고 있다. 날  
장을 미세로 써도 없이 죽락처럼 험  
보복으로의 히트이며 너도나도 인민  
군대네에 봄터를 훑어하고 있으며 모든  
단위들에서 전시생산을 보장하는  
기세로 중간의 등을 더욱 높여가  
고 있다.

침략자, 도달자들을 무자비하게 정  
벌하고 선군조선의 백승의 기상을 떨  
쳐낸 신성파 각오를 암울한 천민군민의  
심장에 널뛰는 것은 무엇인가.

백두산총대를 둘러 주거드시고 우  
리 조국을 선군의 한 걸로 줄기차게  
이교시에 이 땅에 백승의 럭시만  
이 흐르게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최후승리의 축포성으로  
풀없이 뒤내어갈 철석의 의지이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선군정치에는 혁명의 총대우에  
나라와 민족의 존엄도, 혁명의 승  
리도 있다는 선군혁명의 원리가 구  
현되고 있으며 혁명은 오직 자기 힘  
을 강화하고 자체의 힘으로 하여야  
한다. 자력자강의 청진파 우리 당  
의 드립없는 반체자주적립장, 혁명  
적원칙이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자주적근위병들은 과연 무  
엇으로 하여 달력을 배팡이 그려도  
드세요. 신실과 학관이 그렇듯 드높  
은가. 지난날 세계지도에서 빛을 뒀  
었던 코자크는 나와 조선이 과연 무  
엇 힘으로 사회주의강정보루로 우뚝  
솟아나고 있는가.

백두산총대,  
이 강위력한 보검을 끌어쥐고

## 백두산총대에 어린 필승의 의지

조선혁명을 이끌어 오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계시여 우리 군대와 인  
민은 그처럼 복잡다단한 혁명의 길  
을 오직 승리하는 이름으로 빛내여  
하겠다는 합성이 미쳐나고 있다. 날  
장도 미세로 써도 없이 죽락처럼 험  
보복으로의 히트이며 너도나도 인민  
군대네에 봄터를 훑어하고 있으며 모든  
단위들에서 전시생산을 보장하는  
기세로 중간의 등을 더욱 높여가  
고 있다.

침략자, 도달자들을 무자비하게 정  
벌하고 선군조선의 백승의 기상을 떨  
쳐낸 신성파 각오를 암울한 천민군민의  
심장에 널뛰는 것은 무엇인가.

백두산총대를 둘러 주거드시고 우  
리 조국을 선군의 한 걸로 줄기차게  
이교시에 이 땅에 백승의 럭시만  
이 흐르게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최후승리의 축포성으로  
풀없이 뒤내어갈 철석의 의지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의 한  
기록으로 한 첫 자유을 세기신 사연을  
은 극위당사단에 대한 우리 원수님의  
현지시찰은 백두산총대를 높이 드리고  
시작해 조국과 인민을 지켜, 자주와  
평의를 지켜 모든 것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처럼 선군혁명의 한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그이의  
드림없는 신념의 발달이었다.

정성대와 함께 개척되고 흥대와  
함께 천진해온 것이 바로 조선혁  
명이다. 조선혁명의 길을 내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에  
유산으로 물려주신 두사루의 전통중  
의 하나가 소중히 전시되어있다.

언제나 부닥치는 시련을 총대의  
위력으로 해쳐온 우리 수령님이시  
기에 생애의 마지막 시기의 전군절  
날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에 계  
수여해주신것도 뜻깊은 『백두산』권  
총이었다.

인민군지회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부가 많고 많으니 면한 우 리  
수령님께서는 이렇듯 『백두산』권총  
을 안겨 주시며 흥대를 놓으면 조국  
을 잊는다는 것, 흥대 만이 민족의 살  
길이 머물고 전부에 따라는 전리를  
새겨주시었던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흥대의지, 선군의지

남을 생각해보라. ...  
조선혁명의 첫 기슭에서 총대 우  
에 혁명위업의 승리가 있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도 번영도 있다는  
선군의 전리를 밝혀신 위대한

수령님.

사회주의를 위한 두정도, 인민의  
행복을 위한 창조도 단번에 세운 혁  
명의 대결을 동반하는 결사전이었  
기 때문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의의 풍  
기를 험난의 혼란마리를 해  
방해하기 위해 전선을 전진해온 것을 충  
기지 않습니다. ...

어온 동의 산발들을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신 이 교시에  
는 제국주의와의 침전에 대한 대결전에서  
우리 당원과 군사종사에 힘을 끌어  
나가시려는 그이의 두철한 선군파  
의지가 응축되어있었다.

1900년대 후반기 제국주의자  
들의 악랄한 반봉국제동등이 극도에  
달할 때에도 우리 장군님의 선군의  
의지는 변함이 없으셨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에서는 강선  
길에 앞서 군수물류장성을 위한 평  
원길을 걸으시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도발계획에 그치던 우리  
장군님, 제국주의자들이 힘을 불고  
돌려버렸을 때 그 어떤 대가를 치르  
더라도 국을 지켜야 하기 위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의 길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언제나 부닥치는 시련을 총대의  
위력으로 해쳐온 우리 수령님이시  
기에 생애의 마지막 시기의 전군절  
날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에 계  
수여해주신것도 뜻깊은 『백두산』권  
총이었다.

인민군지회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부가 많고 많으니 면한 우 리  
수령님께서는 이렇듯 『백두산』권총  
을 안겨 주시며 흥대를 놓으면 조국  
을 잊는다는 것, 흥대 만이 민족의 살  
길이 머물고 전부에 따라는 전리를  
새겨주시었던 것이다.

두사루의 권총!

만경대혁명가문의 계주봉과도 같  
은 그 두사루의 권총을 높이 드리고  
시작해 조국과 인민을 지켜, 자주와  
평의를 지켜 모든 것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처럼 선군혁명의 한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그이의  
드림없는 신념의 발달이었다.

자, 이것이 우리 아버지나 나에게  
물려온 유산이다. ... 이 두사루를 떠  
나가니 삼아 돌립령 군을 시작해보자.  
지금은 이 두사루가 전부이지만  
이것이 세끼를 치고 또 쳐서 200

자루, 2000자루, 2만자루로 철

는 끈 위대한 장군님의 신념이었다.  
미제의 새 전쟁도발 등이 악랄해  
지면 1960년대에 선군혁명행도  
의 첫 자유를 새기시며 선군혁명위업  
개승의 중요한 의지를 더 옥 굳히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나는 군사제일주의를 주장합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흥대를 중시하고  
언제나 흥대를 제일시 한다는 것을 충  
기지 않습니다. ...

어온 동의 산발들을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의 심장마다에  
세운 동의 사명감, 선군의 흥대에  
관한 확신은 충대의 사명감, 선군의  
흥대에 미제와 기어이 결전을 보아  
야 한다는 원쑤격렬의 의지였다.

1990년대 후반기 제국주의자  
들의 악랄한 반봉국제동등이 극도에  
달할 때에도 우리 장군님의 선군의  
의지는 변함이 없으셨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에서는 강선  
길에 앞서 군수물류장성을 위한 평  
원길을 걸으시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도발계획에 그치던 우리  
장군님, 제국주의자들이 힘을 불고  
돌려버렸을 때 그 어떤 대가를 치르  
더라도 국을 지켜야 하기 위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의 길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언제나 부닥치는 시련을 총대의  
위력으로 해쳐온 우리 수령님이시  
기에 생애의 마지막 시기의 전군절  
날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에 계  
수여해주신것도 뜻깊은 『백두산』권  
총이었다.

인민군지회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부가 많고 많으니 면한 우 리  
수령님께서는 이렇듯 『백두산』권총  
을 안겨 주시며 흥대를 놓으면 조국  
을 잊는다는 것, 흥대 만이 민족의 살  
길이 머물고 전부에 따라는 전리를  
새겨주시었던 것이다.

두사루의 권총!

만경대혁명가문의 계주봉과도 같  
은 그 두사루의 권총을 높이 드리고  
시작해 조국과 인민을 지켜, 자주와  
평의를 지켜 모든 것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처럼 선군혁명의 한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그이의  
드림없는 신념의 발달이었다.

자, 이것이 우리 아버지나 나에게  
물려온 유산이다. ... 이 두사루를 떠  
나가니 삼아 돌립령 군을 시작해보자.  
지금은 이 두사루가 전부이지만  
이것이 세끼를 치고 또 쳐서 200

자루, 2000자루, 2만자루로 철

나를 생각해보라. ...

조선혁명의 첫 기슭에서 총대 우  
에 혁명위업의 승리가 있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도 번영도 있다는  
선군의 전리를 밝혀신 위대한

수령님.

사회주의를 위한 두정도, 인민의  
행복을 위한 창조도 단번에 세운 혁  
명의 대결을 동반하는 결사전이었  
기 때문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의의 풍  
기를 험난의 혼란마리를 해  
방해하기 위해 전선을 전진해온 것을 충  
기지 않습니다. ...

어온 동의 산발들을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의 심장마다에  
세운 동의 사명감, 선군의 흥대에  
관한 확신은 충대의 사명감, 선군의  
흥대에 미제와 기어이 결전을 보아  
야 한다는 원쑤격렬의 의지였다.

1990년대 후반기 제국주의자  
들의 악랄한 반봉국제동등이 극도에  
달할 때에도 우리 장군님의 선군의  
의지는 변함이 없으셨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에서는 강선  
길에 앞서 군수물류장성을 위한 평  
원길을 걸으시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도발계획에 그치던 우리  
장군님, 제국주의자들이 힘을 불고  
돌려버렸을 때 그 어떤 대가를 치르  
더라도 국을 지켜야 하기 위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의 길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언제나 부닥치는 시련을 총대의  
위력으로 해쳐온 우리 수령님이시  
기에 생애의 마지막 시기의 전군절  
날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에 계  
수여해주신것도 뜻깊은 『백두산』권  
총이었다.

인민군지회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부가 많고 많으니 면한 우 리  
수령님께서는 이렇듯 『백두산』권총  
을 안겨 주시며 흥대를 놓으면 조국  
을 잊는다는 것, 흥대 만이 민족의 살  
길이 머물고 전부에 따라는 전리를  
새겨주시었던 것이다.

두사루의 권총!

만경대혁명가문의 계주봉과도 같  
은 그 두사루의 권총을 높이 드리고  
시작해 조국과 인민을 지켜, 자주와  
평의를 지켜 모든 것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처럼 선군혁명의 한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그이의  
드림없는 신념의 발달이었다.

자, 이것이 우리 아버지나 나에게  
물려온 유산이다. ... 이 두사루를 떠  
나가니 삼아 돌립령 군을 시작해보자.  
지금은 이 두사루가 전부이지만  
이것이 세끼를 치고 또 쳐서 200

자루, 2000자루, 2만자루로 철

나를 생각해보라. ...

조선혁명의 첫 기슭에서 총대 우  
에 혁명위업의 승리가 있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도 번영도 있다는  
선군의 전리를 밝혀신 위대한

수령님.

사회주의를 위한 두정도, 인민의  
행복을 위한 창조도 단번에 세운 혁  
명의 대결을 동반하는 결사전이었  
기 때문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의의 풍  
기를 험난의 혼란마리를 해  
방해하기 위해 전선을 전진해온 것을 충  
기지 않습니다. ...

어온 동의 산발들을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의 심장마다에  
세운 동의 사명감, 선군의 흥대에  
관한 확신은 충대의 사명감, 선군의  
흥대에 미제와 기어이 결전을 보아  
야 한다는 원쑤격렬의 의지였다.

1990년대 후반기 제국주의자  
들의 악랄한 반봉국제동등이 극도에  
달할 때에도 우리 장군님의 선군의  
의지는 변함이 없으셨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에서는 강선  
길에 앞서 군수물류장성을 위한 평  
원길을 걸으시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도발계획에 그치던 우리  
장군님, 제국주의자들이 힘을 불고  
돌려버렸을 때 그 어떤 대가를 치르  
더라도 국을 지켜야 하기 위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의 길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언제나 부닥치는 시련을 총대의  
위력으로 해쳐온 우리 수령님이시  
기에 생애의 마지막 시기의 전군절  
날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에 계  
수여해주신것도 뜻깊은 『백두산』권  
총이었다.

인민군지회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부가 많고 많으니 면한 우 리  
수령님께서는 이렇듯 『백두산』권총  
을 안겨 주시며 흥대를 놓으면 조국  
을 잊는다는 것, 흥대 만이 민족의 살  
길이 머물고 전부에 따라는 전리를  
새겨주시었던 것이다.

두사루의 권총!

만경대혁명가문의 계주봉과도 같  
은 그 두사루의 권총을 높이 드리고  
시작해 조국과 인민을 지켜, 자주와  
평의를 지켜 모든 것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처럼 선군혁명의 한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 그이의  
드림없는 신념의 발달이었다.

자, 이것이 우리 아버지나 나에게  
물려온 유산이다. ... 이 두사루를 떠  
나가니 삼아 돌립령 군을 시작해보자.  
지금은 이 두사루가 전부이지만  
이것이 세끼를 치고 또 쳐서 200

자루, 2000자루, 2만자루로 철

나를 생각해보라. ...

조선혁명의 첫 기슭에서 총대 우  
에 혁명위업의 승리가 있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도 번영도 있다는  
선군의 전리를 밝혀신 위대한

수령님.

사회주의를 위한 두정도, 인민의  
행복을 위한 창조도 단번에 세운 혁  
명의 대결을 동반하는 결사전이었  
기 때문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의의 풍  
기를 험난의 혼란마리를 해  
방해하기 위해 전선을 전진해온 것을 충  
기지 않습니다. ...

어온 동의 산발들을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의 심장마다에  
세운 동의 사명감, 선군의 흥대에  
관한 확신은 충대의 사명감, 선군의  
흥대에 미제와 기어이 결전을 보아  
야 한다는 원쑤격렬의 의지였다.

1990년대 후반기 제국주의자  
들의 악랄한 반봉국제동등이 극도에<br





